

전자출판 발전방향에 관심 기울여야

‘화면책’ 개발 위한 연구와 투자 요구돼

이기성 | 계원조형예술대 출판학과 교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출판행위의 기본 목적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출판물이다. 출판물은 어디에 인쇄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출판물, 디스크 출판물, 화면 출판물로 나뉜다. 전자출판(CAP)은 전자출판물(EP)이라고도 부르며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을 가리킨다. 즉, 전자출판물은 전자매체에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지칭한다.

인터넷 사용인구 폭증해

지난해 6월과 11월, 전국의 15~49세 연령 1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센서스를 조사한 인터넷메트릭스는 2002년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전국민의 절반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출판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면책’(Screen Book)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 출판계도 화면책 분야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전자출판의 한 분야로, 화면책에서 말하는 ‘화면’은 모니터 화면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책의 내용이 들어 있는 가상공간을 화면을 통해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화면책출판(SBP)은 통신망책 출판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인터넷 통신망에서 출판하는 것은 인터넷 화면책 출판이라 한다.

한편, 화면책은 흔히 웹책(Web Book)이나 인터넷책이라 부른다. 우리 벤처기업인 씨오택(대표 안동수)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웹백과사전’ 프로젝트에 SGML/XML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제공한 것은 우리 화면책 제작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것을 입증한다.

통신을 이용한 화면책은 인터넷을 포함하는

인터넷의 발전은 전자출판의 눈부신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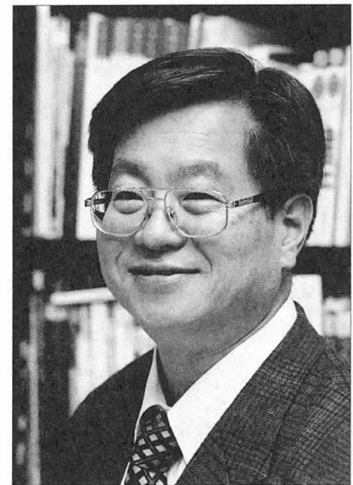
‘기대주’는 화면책. 아직 우리 출판계에는 낮은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하면 출판혁명의 대열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인트라넷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우편, 게시판, 경영정보시스템,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을 처리하는 새로운 기업통신망이다. 설치비용이 그룹웨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서 세계 어디서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만큼 출판사와 인쇄소는 ‘OSMP’라는 공동 입장에 서게 됐다. ‘한 소스 여러 제품 생산’(단일 소스 다품종 생산)을 뜻하는 OSMP는 출판물을 기획할 단계부터 다매체 활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 출판사에서 종이책을 출판하고 나서 CD-ROM 디스크책으로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했더니, 기획 단계에서 종이책과 디스크책, 맥킨토시 컴퓨터용인지 IBM컴퓨터용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탓에 큰 곤욕을 치렀다. 사소한 부주의로 종이책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 디스크책 데이터를 제작해야 했던 것이다.

‘포스트 컴퓨터 시대’ 대비해야

화면책의 일종이긴 하나 컴퓨터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이나 팜파일럿, 이동전화기 같은 ‘포스트



이기성 교수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행위인 ‘PPP’도 좀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정보검색이 쉽고 사용하기가 비교적 간편한 포스트 컴퓨터의 장점을 살린 출판 형태가 인기를 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판계는 현재의 젊은 독자들이 휴대폰은 물론, E-메일 주소 두개가 기본이고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자출판의 발전은 거스를 수는 없는 시대적 추세다. 21세기 이미 예고된 출판혁명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출판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